

기자가 본 근일 스님

장대비가 내리던 지난 8월 30일 경북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전국에서 찾아온 100여명의 불자들은 이날 저녁 9시부터 시작된 부석사 주지 근일 스님(고운사 회주의 법문을 들은 후 새벽 3시까지 쉼 없이 참선을 했다. 23년간, 한번도 선 적이 없다는 부석사 월말 철야정진은 근일 스님의 원력과 신도들의 공부 열기가 조화를 이뤘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난해부터 건강이 좋지 않았던 근일 스님은 많이 쾌유한 상태였지만, 일체 외부 법회와 인터뷰를 사양하고 계셨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둘째 상좌인 자현 스님을 찾아갔다. "가까이서 시봉한 스승은 어떤 분이신가요?"라는 기자의 질문에 자현 스님은 시원스레 대답했다.

"한마디로, 스님 같은 스님이시지요." 대야상의 전란은 없을 듯 싶었다. 선사이자 율사이면서도 고운사를 중심으로 한 경북지역의 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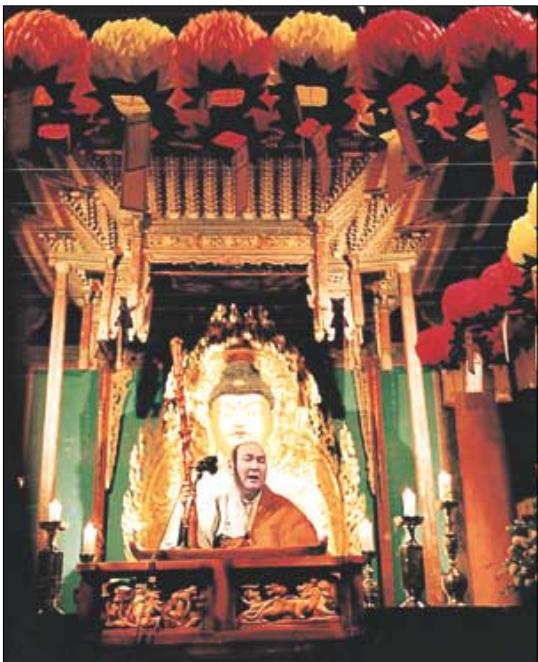
교세를 회복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온 근일 스님은, 스님들이 이판과 사판에 걸림없이 신도들의 시주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수년 전 송광사 방장 추대를 사양한 것도 경북 지역의 열악한 불교 토대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한다. 30 세 초반, 해인사 선방에서 100 일 용맹정진 중 견처를 얻은 근일 스님은 구산 스님의 인가를 받고 법제자가 되었다. 경봉, 성철,

결제맨 용맹정진, 해제철엔 울력·포교 강조

전강, 향곡 선사 문하에서 주로 공부하였으며 영천 묘각사에서 10년간 보인(保田) 공부를 한 후 1980년 고운사 주지를 맡으면서 '하화중생'의 길에 나섰다. 1 만여명의 절 땅에 제자들과 직접 농사를 지으며 불사를 쉬지 않고 해 온 근일 스님은 늘 제자들에게 '결제철엔 용맹정진하고 해제철엔 울력하고 포교할 것' 을 가르친다.



도원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근일 스님은 60년에 사미계, 67년에 비구계 및 보살계를 수지했다. 80~92년 고운사 주지를 역임했으며 92년부터 부석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비기어나 눈이 오나, 병이 들었을 때도 반드시 약속된 법회에 나와 사자후를 토하는 근일 스님.

고 예배하였습니다.

공부를 제대로 하려면 이처럼 무념이 되어야만 하기에, 알음알이가 떨어져 나가야 합니다. 의심(疑心)이 있는 한 고통을 받으니까요. '정진한다는 생각'조차 있다면 망입니다. 많이 아는 것이 보배가 아닙니다. 말과 생각이 많으면 더욱 상응치 못합니다. 말과 생각이 없어지면 일일이 불생하여 만법에 허물이 없게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해탈되어 있습니다. 믿지 못할 뿐입니다.

무념정정(無念淸淨)이 선(禪)임을 믿고, 계·정·혜 삼학으로 탐·진·치 삼독을 고쳐야 합니다. '경계를 대해도 움직이지 않는 것(對境不動)'이 선정입니다. 선정을 통해 힘을 얻어 자재한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별심이 다 떨어져야 합니다. 생사와 유무, 고저, 장단 등 온갖 시비가 들이 아니어야 깨칩니다.

그러면 행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신·해·행·증(信解行證), 즉 깨닫기 위해서 믿고, 알고,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삼학을 잘 뒤

아야 합니다. 삼학이라는 것은 계·정·혜 이 세 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청정무염(淸淨無染)이 계요. 대경무동(對境無動)이 정이며, 독자재력(得自在力)이 혜라' 했습니다. 오늘날 지식인은 많은데 지혜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한 신도의 초청으로 일본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99%의 국민이 불자인 일본의 절에서 이타심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매우 부끄러웠습니다. 일본에서는 어린 아이는 13곳, 남자는 42곳, 여자는 33곳 등 모두 88 곳의 절을 참배하면 소원이 이뤄진다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돌아도 1주일 이 걸리는 순례길이지만, 이 순례 동안 남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배운다고 합니다. 절에서는 내 가족, 이웃, 국가, 세계가 모두 잘 되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일깨워 줍니다. 절에서 국민들에게 지장보살, 관세음보살의 이타심을 가르치니 선진국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 자체가 절 생활 그대로 이니, 근검하고 절약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10억불 상당의 음식쓰레기가 낭비되는 것과 비교되지요.

아침 저녁 참선·공부하면서 다시한번 돌아보는 삶 사세오

그런데 우리 교육은 어떻습니까. 무조건 1등 해라. 남보다 앞서라. 맨날 극단적인 데모나 하니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사장은 종업원이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종업원도 사장이 있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습니다. 자식과 부모간, 나라와 나라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타심을 길러줘야 함께 잘 살 수 있는데, 교육이 망쳐 놓았습니다. 대통령부터 회사 사원들까지 모두 잘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인의 책임이 가장 큼니다.

일본 여행시, 나를 안내해 준 의사가 내 주소를 물길래, '미타국 석가도 보살군 문수면 지혜리 무척사 곽외인(外人: 세월 밖의 사람)'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의사가 아무리 의술이 뛰어나도 선정을 익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정을 닦아야 수행도 생활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여기서 공부를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도 발담에 앉아있던 마음으로 끊어짐 없이 열심히 해야 될 것입니다. 가나 오나 매일 경계에 팔려서 서비나 하며 지내지 말고, 보기는 보되 본 바 없이 보고, 듣기는 듣되 들은 바 없이 들으란 말입니다. 화두를 항상 관하면서 의정을 일으키고 가나 오나 이것을 본업으로 알며, 다른 것은 부업으로 삼으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찾는 공부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찾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에 만날 때는 더욱 공부가 되어 오시길 기대합니다.

정리=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진명스님의 스님이야기

도원스님

울창이에게 삼진 아웃당한 스님. 네 령도 안 되는 작은 토굴을 우주보다 더 넓게 쓰시는 스님. 인연되는 불자들이 조금이라도 부처님 가까이 다가갔을 수 있도록 지도하시는 스님. 일찍 출가해서 재방 선원을 여의지 않고 수좌로 정진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스님의 생활 주변에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회향하는 삶의 향기가 배어있는 스님. 이렇게 스님을 생각하면 수행자로서 여러 가지로 닮고 싶은 부분이 많은 스님이시지요.

그런 도원(道源)스님과의 인연은 참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내가 출가하기 전 스님께서 송광사 선원에서 정진 중이실 때 스님을 처음 보았으니까 말이다. 처음 찾아가던 불자들한테 큰법당을 비롯해서 각 전각에 모셔진 주불과 보살들을 대해서 어찌나 자상하게 설명하며 안내해 주시던지 내가 출가하고 난 후에도 불교 상식을 공부하는데 기초 지식으로 큰 힘이 되었다. 그리고 수좌로서 지내 온 시간만큼 진하지도 연하지도



그림·문병성

많은 스님의 향기는 처음 마음을 내서 사찰을 찾는 초심자들의 서먹하고 어색한 마음을 다 해어 리시는 자상함으로 스며난다. 나도 그래서 대중 처소에 있을 때는 처음 사찰을 찾는 사람들에게 어색하고 있을 당시 사찰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자상함으로 대하고 싶었다.

스님께서는 지리산 자락에 작은 토굴을 손수 지어서 상주하신다. 일꾼 한 사람과 함께 터를 고르고 손을 맞춰 지은 네 평에 불과한 작은 토굴에서 누구보다 행복한 수행자로 정진하신다. 안 거 기간이 되면 선원에서 후배들의 귀감이 되시고 해제후 토굴로 돌아오면 스님 거처를 간간히 찾아오는 후배들에게는 선배로서, 불자들에게는 따뜻한 선지식으로 정진하는 동안 부딪혔던 크고 작은 마찰이나 경계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며 좋은 길잡이도 되어 주신다. 그리고 스님은 항상 수행자는 적어도 이런 것 정도는 실천해야 한다고 당부하신다. 그동안 우리 불교는 너무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이웃

들을 향해 회향하는 일을 꼭 수행과 더불어 해야 한다고 말이다.

그리고 보니 스님이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불교학부 지도 법사를 하실 때부터 세상의 병고를 치료할 대의왕을 꿈꾸는 의학도들이 방학이 되면 의료혜택이 없는 벽지나 낙도에 의료봉사를 떠날 때 약값을 보태면서 시작된 선제회라는 모임을 이끄신지가 20년이 넘는다. 그 선제회를 통해 소리 없이 요란하지 않게 주변을 돌보고, 스님이 상주하시는 아랫마을 어려운 학생을 찾아 장학금도 보태시고, 복지시설을 갖추지 못해 정부나 단체들로부터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운 양로원이나 고아원을 찾아 힘닿는 대로 도우시고, 불자들이 중요한 마음공부 또한 게으르지 않도록 지도하는 일을 꾸준하게 하고 계신다. 그래서 스님께는 결제와 해제가 따로 없는 셈이다.

나는 아주 가끔 도심생활에 마음이 팍팍하고 삭막하다는 생각이 들면 스님이 계신 작은 토굴을 찾는다. 스님의 정진 시간에 방해될까 많이 고려해서 찾아가지만 나에게겐 큰 힘이 되는 시간이다. 자연에 묻혀서 온 산천을 다 품고 사는 스님께서는 천수가 많다. 주변에 어울려 사는 모든 새들과 다름없어, 정솔모, 곤충들까지도 스님께는 말

선제회 이끌며 이웃돕기 20여년

울창이와 3년 '씨름' 삼진 아웃!

벗이 된다. 언젠가 스님은 울창이한테 삼진 아웃당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스님의 작은 토굴 옆에는 고스나 깨며 열두 같은 채소를 심는 작은 텃밭도 있고 정말 손바닥만한 미니리팡도 있다. 스님은 그 작은 미니리팡 옆에 수련을 심을 수 있는 연못을 만드셨는데 연못이 생기자마자 울창이들의 본부가 되었다. 그래서 그 작은 울창이들이 다라도 생겨나기 전에 어찌나 수련 잎사귀를 깊어먹는지 꽃봉오리도 채 맺기 전에 수련이 다 사라져 버렸단다. 그렇게 첫 해에 꽃을 보지도 못하고 울창이 수에 완패를 당하시고 그 다음 해에는 꼭 수련 꽃을 보리라, 꼭 울창이를 이겨보리라 다짐하고 심으셨단다. 그리고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 알을 낳고 옮기시자마자 알이 울창이가 되기 전에 울창이를 큰 들뜸에 담아 산 아래 논에다 옮겨 주었는데 어느새 또 다시 찾아와 수련을 몇 일만에 다 먹어 치우더라. 그렇게 삼년은 스님은 울창이들의 수를 감당하지 못하고 삼진아웃 당하셨다고 하셨다. 그 후 두 손 번쩍 들고 수련을 스님 방 앞에 정말 손바닥 만한 게 연못을 장만해서 옮겨 주셨단다.

참 따뜻한 분이요. 지나는 세월이 깊은 산처럼 깊어질 수록 수행자로서 수행자에게 존경받는 시한한 향기 간직하시길 감히 두 손 모뎀다.

■ 불교방송 '차 한잔의 선율' 진행자

육법등(六法燈)



의장등록 제 2002-33243호



용암(서서울,광진구) 대웅전에 장엄된 육법등

특징

- 1) 부처님께서 보리수아래서 성도 하신후 49년간 설법을 하시기에 등을 49개 밝히니 그 모양이 마치 보리수 나뭇잎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음
- 2) 여러곳에서 물들지 않고 항상 깨끗함을 나타내는 연꽃모양을 만들어 등을 밝힘
- 3) 연등의 밝기를 자유로이 조절하여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음
- 4) 등의 재질을 신주 및 아크릴로 제작하여 변형 및 변색이 되지 않음

활용범위

- 1) 법당내 상단 부처님전 조명 및 장엄등
- 2) 지장단 영가천도를 위한 49등 및 각종 제사단에 활용
- 3) 각단의 인등 및 장엄 등으로 활용 가능함
- 4) 예식장의 주례단 단상 및 촛대 대용으로 활용가능
- 5) 장례 예식장의 영가단에 환한대신 장엄 가능함
- 6) 등 장엄이 필요한 각 단상 및 기탁장소

(주)동원전기 주소: 경기도 포천군 포천읍 설원리 290-1 전화: 031)541-1417 / 팩스: 031)541-1419

주관 및 대리점 모집

신소재 납골추모함 안내

납골추모함의 종류 (특별 사이즈 및 문양 별도주문가능)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금 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동 색), 연꽃문양 납골추모함 (철 보), 내호함 (도자기), 기본사이즈

고인의 유골을 담은 내호함을 연꽃문양 납골추모함에 봉안하여 보관

영혼을 평안하며 안전하게! 참배는 쾌적하게! 추모함 선택은 올바르게!

- 납골당이 공헌화 되어가고있는 과정에서 문제발생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습니다.
 1. 모처럼 가족과 참배하러 왔는데 심한 악취로 인해 인상을 찌푸리고 마지못해 참배를 끝리던 일들이 기억나실 것입니다. 과연 이렇게 악취나는 유골을 그냥 방치해 두는것이 참된 효(孝)일까요? 이미 악취가 생기기 시작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더 악취와 벌레까지 생깁니다.
 2. 이회에서 새로이 개발된 신소재 납골추모함은 기법고 튼튼한 금속으로 제작되었으며 도자기에 비해 활동하기 쉽고 외형 또한 아름답습니다. 납골추모함은 납골당과 납골당이 붕괴되더라도 유골이 소실되지 않고 인연하게 유지될 수 있습니다. 위의 여러 문제점들을 납골추모함이 해결함으로써 쾌적하고 편안한 참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유골을 화장하여 납골당이 납골당에 안치할 경우 안전사고 청결한 상태로 봉안하고 싶은 것은 누구나 다 바램입니다.

이화사 ☎02)392-0925 서울시 중구 종림동 155-2 GS빌딩